

격침당한 핵잠 김병현...2군으로 갔!

베이스볼 브레이크

ML 출신 부담감·자신감 결여 큰 문제
최근 3연패 등 극도의 부진에 2군행
“자신있게 공 뿌리면 다시 선발경쟁”

‘핵잠수함’ 김병현(33·넥센·사진)이 최근 부진으로 2군행 통보를 받았다. 넥센은 2일 문학 SK전에 앞서 김병현을 포함한 투수 3명을 한꺼번에 2군으로 내려보냈다. 김병현은 1일 SK전에서 3이닝을 던져 만루홈런을 내주며 4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5월 8일 1군 엔트리에 포함된 이후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가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1군 엔트리에서 12일간 제외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컨디션 조절 차원이었고, 1군과 함께 움직였다. 넥센



코칭스태프는 김병현이 최근 등판에서 3연패를 당한 것도 문제지만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던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당분간 2군에서 볼을 많이 던지면서 가다듬을 필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여된 자신감 회복이 최우선 과제

넥센 코칭스태프는 김병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자신감 결여로 꼽았다.

김시진 감독은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라 팬과 여론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다보니 생각이 많았고, 자신 있게 볼을 던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병현은 볼펜 투구 때 볼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다. 다른 선발투수들은 볼펜 투구 때 볼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던지는데 김병현은 자신의 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지 볼펜 투구수가 항상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병현은 2군에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예정이다. 선발로 꾸준히 출전시켜 볼을 많이 던지면서 감각을 회복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 감독은 “볼을 던지고 난 뒤 회복속도가 늦어 중간투수로 활용할 수 없다. 2군에서 자신감을 회복해 올라오면 다시 선발 경쟁을 시킬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결함은 시즌 종료 후 개선

김병현은 기술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더핸드 투수는 투구할 때 앞으로 뻗는 발의 뒤꿈치 정도까지 볼을 끌고 나와서 던져야 한다. 그러나 김병현은 볼을 끌고 나오다 중간에 던지기 때문에 제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넥센 코칭스태프의 분석이다. 김시진 감독은 “기술적 결함 때문에 왼손 타자들을 상대할 때 몸에 맞는 볼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병현의 기술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감독은 “기술적 결함을 수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김병현을 시즌 종료 후 마무리 훈련부터 합류시켜 기술적 보완을 시키는 등 일찍 준비시킬 생각이다. 김병현에게 시즌 종료 후 휴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문학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yong11

‘미래의 에이스’ 정인욱 “오랜만에 1군땅 밟아서”

삼성은 2일 깜짝 엔트리 변경을 했다. 류중일 감독은 전날 대구 두산전 선발로 나서 3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던 차우찬(25)에게 2군행을 통보했다. 류 감독은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몸에 대해 이야기 하더라. 2군에서 다시 밸런스를 잡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중요한 시기에 선발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류 감독은 차우찬을 대신해 정인욱(22)을 1군에 올렸다. 정인욱은 ‘미래의 삼성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는 기대주이지만 팀의 두터운 투수진에 가로막혀 등판 기회를 잡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5월 6일 대구 한화전에 등판해 1.1이닝 동안 2실점(방어를 13.50)한 것이 1군 등판의 전부다.

오랜만에 선 대구구장이 어색했던 것일까. 정인욱은 훈련하는 동안에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 낯설다”며 짧게 1군 등록 소감을 밝혔다. 류 감독은 “정인욱이 생각이 많을 것이다.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 심창민도 올라와야 하는데 자리가 없다”며 투수들의 단호한 마음가짐과 노력을 강조했다.

차우찬의 2군행으로 삼성 선발 로테이션에도 변화가 생겼다. 류 감독은 현 선발들의 등판일을 하루씩 앞당기고 열흘 뒤인 12일 대구 LG전 때 1군 등록이 가능한 차우찬을 선발 투입해 6선발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인욱은 중간계투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 | 정지욱 기자

최형우, 류현진 1표차 제치고 ‘7월 MVP’

삼성 최형우가 2일 ‘2012 프로야구 R&B 7월 MVP’에 선정돼 대구구장에서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자단 투표에서 총 22표 중 8표(36%)를 받아 7표를 얻은 한화 류현진을 1표 차이로 제쳤다. 최형우는 7월 58타수 19안타(타율 0.328) 6홈런 17타점을 기록했다.

두산, 오늘부터 ‘선수 포토카드’ 배포

두산이 3일 잡지 KI A전부터 홈 12경기 동안 선수 포토카드(사진)를 배포한다. 총 12명의 선수로 제작된 포토카드를 경기당 3000장씩 야구장 출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12장을 모두 모은 팬들에게는 케이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대현, 2군 한화전 등판 1.1이닝 1실점
롯데 정대현이 2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군 한화전 7회 마운드에 올라 1.1이닝(23구) 1안타 1탈삼진 1실점(비자책)을 기록했다. 2번째 실점 등판이다. 정대현은 “몸은 가벼웠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다. 아직 할 게 많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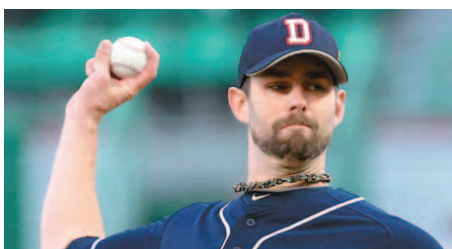
KIA 2루수 안치홍(뒤)이 2일 사직 롯데전 1회말 2사 1루서 손아섭의 도루 시도를 잡아내고 있다.

2년 연속 10승 용병 니퍼트 “난 아직 배고프다”

“PS서 좋은 성적뎌 코리안드림 완성”

두산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31·사진)는 1일 대구 삼성전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32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승리로 그는 시즌 10승째를 수확해 15승(7패)을 올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승 고지를 밟았다. 그는 국내 외국인투수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투수로 평가 받고 있다. 한해만 활약하는 ‘반짝 선수’가 아니라 ‘한국형 장수 외국인선수’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것이다. ‘코리안드림’을 이뤘다고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니퍼트 자신은 만족스럽지 않다



는 반응이다. 그는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지난해 15승을 했지만 팀은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팀 승리를 위해 투구하고 싶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적을 올린다면 그 때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7월 한 달간 1승도 쟁기지 못했던 니퍼트는 1위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쟁겼다. 올 시즌 그가 거둔 10승 중 4승을 삼성으로부터 따냈다. 니퍼트의 존재만으로도 두산은 포스트시즌에서 최강 삼성을 만나더라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니퍼트는 “나는 평소대로 투구할 뿐이다. 삼성에 특별히 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다만, 계속 이기다보니 자신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승수를 쌓지 못할 때도 걱정은 없었다. KIA전만 제외한다면 내가 만족할 만한 투구를 했다”며 덤덤하게 소감을 밝혔다.

대구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stopwook15

‘방망이와의 동침’ 손아섭은 왜?



롯데 손아섭(24·사진)은 “일단 목표가 있어 야야구가 된다”고 말한다. 올 시즌 그의 확고부동한 목표는 최다안타왕이다. 안타를 하나라도 더 치려 하다보면 타율도 올라가고, 골든글러브 2연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손아섭의 각오는 1일 사직 KIA전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잘 드러났다. 3-13까지 크게 뒤지자 롯데 양승호 감독은 주전급을 대거 교체했는데 손아섭과 프리에이전트(FA)를 앞둔 김주찬만 남겨뒀다. 손아섭은 9회 1타점 좌중간직시타로 3안타 경기를 만들었다.

팀은 패했어도 내심 할 바는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손아섭은 경기 후 맥이 빠졌다. 최다안타 라이벌인 한화 김태균이 5안타를 쳤다는 비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1일까지 손아섭은 105안타. 김태균은 109안타다. 이만 뺌을 따라잡기 위해 손아섭은 경기가 끝나면 매일 구단 전력분석실에서 CD를 다운받아 간다. 집에서 자신의 타격폼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손아섭은 2일 “지금도 힘과 감으로만 치고 있는 것이라 불만족스럽다. 올해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완벽한 타격 밸런스를 찾고 싶다”고 밝히며 배트를 놓지 않았다. 덕아웃이든 침실이든 장소불문하고 배트를 곁에 두는, 오직 야구에만 미치고픈 손아섭이다.

사직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matrsr121

2군 보약 먹고...다시 뜨는 이대수

“2군서 멘붕 탈출”...7월 타율 0.373 불방망이 부활



한화 유격수 이대수(31·사진)는 지난해 생애 처음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견실한 수비를 자랑하는 그는 생애 처음 3할대